

Family TableTalk

Conversation 02

낮선 시간에 찾아온 나그네

본문

베드로 전서 2: 11-12

생각하기

어느날, 목사님 한분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러한 전염병을 일평생 한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95세된 할머니의 말씀을 언급하였다. 1930년도경에 있었던 “대 공황”이나 “세계 2차대전” 때에도 그녀에게는 지금과 같이 낯설지는 않았다고 했다.

낯설고, 기괴하고, 이상하고, 전례가 없다. 지난 몇달동안 이 단어들이 자주 반복되는 것은 헤아릴수가 없다. 지금과 같은 이런날들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경험했던 날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본질이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을 찾을수 있다.

2장 앞부분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두움에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빛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쓰고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졌다. 그리고, 놀랍고, 기쁘고, 삶을 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거류자이고 망명자인것을 알려주고 있다. 아니면, 한 번역에서는 이것을 “나그네” 라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진리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하고, 선한 행실을 위해 애써야 함을 그 다음 절에서 강조하고 있다. 나그네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알아야 한다 - 아름다울수도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분의 완전하신 삶과 독생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집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낯선 날들은 우리와 같은 나그네들에게, 앞으로 올 삶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적용

- 만약 우리가 나그네, 또는 거류자로 이 땅에서 산다면, 그것은 어떤 모양이 될까? 그리스도 인으로써 어떠한 열매들을 맺을수 있을까?
- 그리스도 인은 매일의 삶속에 영생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당신은 이 세상은 당신의 집이 아님을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
-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전염병은 당신에게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신 영생을 바라 볼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수 있겠는가?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모양의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에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써 우리가 신실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을수 있도록 도와

by John Perritt

John Perritt is the Director of Resources for Reformed Youth Ministries (www.rym.org). He's the series editor of Track, a student discipleship series through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He's the host of RYM's The Local Youth Worker.

cpyu.org



© 2020 Center For Parent/Youth Understanding